

들어가면서

- 에스라, 느헤미야는 본래 하나의 책으로 간주 (제 1과, “히브리성서와 구약성서” 참조). 사해사본에 느헤미야가 발견되지 않음이 느헤미야가 당시 성서에는 없었다고 말할 수 없는 근거.
- 에스라-느헤미야가 당면한 신학적—그리고 정치, 사회, 경제적—과제는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이다. 기록된 이면의 역사적 배경을 파헤친다.

A. 내용

- 에스라 1-6 장
 - 포로 귀환, 성전건축을 다름.
 - 고레스 칙령에 근거(539 BCE). 대하 36:22-23//에스라 1:1-3a => 에스라 6:3-5 (아람어)
 - 세스바살. ‘유다의 군주’(מְלִיכֵי יְהוּדָה, the prince of Judah, 1:8)로 성전의 기초를 놓음(5:16). ‘나씨’(נָסִי, prince)는 사제문서에서 다윗계 통치자를 지칭(겔 34:23-24; 37:24-25).
 - 에스라 3 장에는 스룹바벨이 세스바살의 뒤를 이어 유다 총독으로 임명. 성전 재건을 이어 받음. 스가라서는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고 하나(스 4:9), 정작 봉헌식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. 세스바살과 스룹바벨 사이에 20 여년의 공백기 원인으로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‘유다의 대적’이 등장 (4:1).
 - 합법성/정체성 문제: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?
 - 2 장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리스트는 새로운 공동체와 특히 사제 전통의 합법성 부여. 이들이 에스라 개혁의 기초.
 - 4 장에서 남은 자들의 반대는 돌아온 자들과의 차별화 선언 (에스라 4:3).
 - 성전 재건 후 봉헌식과 유월절 축제 (6:15-22). 유월절 축제는 예루살렘 제의 회복을 의미. 예레미야 41:4-5 에 따르면 포로기간 중에도 사람들은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, “포로의 자손들”(בְּנֵי-הַגּוֹלָהּ bənê haggōlāh, the children of captivity)에게 인정받지 못함.
 - 역사적 자료
 - 아람어 자료 (4:8-6:18)
 - 세스바살 (1 장), 이 후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(3 장)
 - 연대가 일정치 않다. 고레스(559-530)—캄비세스(530-522)—다리우스 I 세(522-486)—사스다(Xerxes, 486-465)—아닥사스다 I 세(Artaxerxes, 465-424). Xerxes 는 에스라 4:6 에 아하수에로왕으로 표기되어 있고,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왕이 Ahasuerus 왕이다.
 - 에스라 4 장에서 대적들은 상소문을 통해 성전공사 중단을 요청하고, 4:17-22 에 따르면 아닥사스다 왕은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다. 반면 에스라 5:5-17 에는 당시 유프라테스 서부지방 총독 닷드내(Tattenai)가 다리우스 I 세에게 보내는 서신과 함께 6 장에는 성전건축을 허락하는 서신. 연대 혹은 왕의 이름에 다소 혼동이 있다.
- 에스라 비망록 (에스라 7-10 장; 느헤미야 8-9 장)
 - 제사장이며 학자인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제 7 년 (458 BCE)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, 모세의 법에 입각한 종교개혁을 시도(7:6). 성전 재건과는 거리가 있다. 성전은 다리우스 왕 제 6 년(515 BCE)에 이미 완성(스 6:15).
 -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은 피정복민의 법을 편찬하는데 관심을 보임. 이런 정책이 지속되었다면, 페르시아의 충신으로서 에스라의 임무는 유대에 법을 제정하여 피통치국의 안정을 꾀하는 일.
 - 에스라의 법=> 모세의 법, 토라와 상당히 일치
- 느헤미야 비망록 (느헤미야 1-7 장; 11-13 장)
 - 느헤미야의 경력에 관한 기록으로 아닥사스다 왕 ‘제 20 년’에 시작 (445 년경).
 - 느헤미야는 왕의 술 따르는 관원이었고, 이는 상당히 높은 지위. 그의 과업은 예루살렘 성벽—성전이 아님—을 재건하는 것인데, 느헤미야가 왕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자원하여 유다 총독으로 12 년간 활동 (느 5:14). 잠시 왕궁에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옴(13:6-7).
 - 느헤미야의 대적은 당시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과 암몬인 지도자 도비아를 중심한 세력으로, 느헤미야는 이들로부터 예루살렘을 독립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.

- 느헤미야는 재건된 도시에 주민을 두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 성전 관리를 맡김. 안식일에 상업을 금하고 또한 통혼을 금지했다(느 13:23-29 => 에스라 10 장)
- 느헤미야 8-10 장
 - 에스라가 토라를 가르치고 백성들은 토라를 공동체생활에 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임 (8:7-8=> 정경으로서 기능). 토라에 대한 끊임 없는 연구와 적용=>유대교의 시작.
 - 언약관계 회복 (covenant-making) => 언약책(출 20:2-23:33)과 covenant-making(출 24:7).
 - 여기서 느헤미야의 활동은 매우 제한적인데(8:9; 10:1), 에스라는 토라에 입각한 종교개혁을,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재건과 함께 도시계획/개혁을 주도했다는 전통에 입각한 듯.

B. 신학적 문제

- 정결 문제—통혼(mixed marriage)
 - 에스라의 종교개혁 중 대표적인 것은 “거룩한 핏줄”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이혼을 단행 (에스라 9:1-4). 대적들은 포로로 간 적이 없는 이스라엘 후손과 사마리아 사람들=> 유대 공동체로 여겨지지 않음. 콜린스는 ‘그 땅의 백성’(the people of the land)과 섞여서는 안된다고 보았는데 (339; Eng., 223),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.
 - The people of the land (עַם הָאָרֶץ): 소위 ‘암하아레쯔’는 왕족, 제사장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평민들 집합체다.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.
 - The peoples of the lands(עַמֵּי הָאֲרָצוֹת): 복수로 쓰인 ‘암메이-하아라쯔트’는 포로기간 중 앗시리아, 바빌로니아 제국이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에 정착시켰는데(왕하 17:24), 이들과 함께 전통적으로 일곱 가나안 족속을 일컫는다. ‘땅들의 백성들’이란 표현은 에스라-느헤미야에만 나온다 (스 3:3; 9:1 2, 11; 느 9:30; 10:28). 단지 문제시 되는 것은, 포로로 사로잡혀 가지 않고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‘땅들의 백성들’처럼 취급받고 있는 점이다.
 - 돌아온 사람들 리스트(2:3-70), 에스라 계보(7:1-5), 선택된 사람들 명단(10:16-44) 등은 사회적 지위를 갖춘 지배계급을 총망라한다. 정결법에 의거한 종교개혁은 단지 종교적 문제가 아닌 “포로의 자손들”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 채택.
 - 통혼 방지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=> 상속문제. 주로 이방여인과 결혼한 유대인에 관심.
 - 이방 여인들과 자녀들을 내어 보냄. 자녀가 상속 문제에 위협이 되기 때문.
 - 이방 남편과 결혼한 유대여인은 문제시 되지 않음.
- 경제 문제—빚
 - 느헤미야는 정치적 문제 외에 극심한 경제 위기를 기록. 사람들은 곡식을 얻기 위해 집과 땅을 저당잡히고 자녀가 노예로 팔린다(느 5:1-13). 보다 근원적 문제는 ‘왕의 세금’(5:4)이다.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 권위에 도전하지는 않지만, 언약책에 의거하여 저장을 잡거나 이자받는 것을 금했다(출 22:25-27; 신 24:10-13).
 - 경제문제가 종교/정치적 이상으로 포장되어 있지만, 그 이면에는 땅/부를 확보하려는 노력.
 - 성전 재건, 도시 재건은 페르시아 제국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, 성전은 세금징수의 역할. 스룹바벨, 에스라, 느헤미야는 한 편으로는 페르시아의 시녀로서 다른 한 편으로는 자신들의 공동체(여후드) 지도자로서 역할을 다함.
 - ‘거룩한 씨앗’을 주창한 에스라의 개혁 이면에는 경제적 득실이 숨어 있다. 포로에서 살아온 골라(gôlāh)공동체가 어떻게 땅(부)을 확보할 수 있나? 그 땅을 가꾸던 ‘땅들의 백성들’(The people of the lands)를 쫓아내는 것이며, 그 이유로 정결법이 등장한다.

결론/평가

- ✚ ‘아닥사스다’란 이름을 가진 왕이 3 명이다. 에스라가 느헤미야의 경우처럼 아닥사스다 I 세 ‘제 6 년’에 예루살렘에 왔다면, ‘제 20 년’에 온 느헤미야보다 약 13 년 먼저 그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아마도 크게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. 왜냐하면 후에, 느헤미야가 이방인들과 통혼문제를 또 한 번 다루고 있기 때문 (느 13:23-29). 또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못한 채로 있다는 것도 에스라의 지도력에 문제를 제기. 그래서 혹자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II 세 (404-358

- BCE) 때 활동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, 대규모 이혼을 강제로 집행한 것이 얼마나 실효를 거두었을지는 의문.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가문 중에도 여전히 통혼이 성행(느헤미야 13:7-8, 28).
- ✚ 에스라-느헤미야가 당면한 문제는 포로기 이후 살아남은 자들의 정체성 형성이다. 페르시아 제국의 감시와 주변국들의 반대하에서 어떻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까—이런 위험, 도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정결 문제가 등장한다. 종교적 가치관을 앞세운 정치/사회 혁명이다.
 - ✚ 에스라-느헤미야는 극한 상황—공동체 정체성 상실의 위기상황—속에서 생존 문제를 다룬다. (성서에 기록되었다 하여 무조건 상황을 무시한 채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=> '해석학적 삼각형' 이해) 도전/위협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. 나와 다른 사람들을 ①적대시, 제거하는 법; ②끌어 앉는 방법. 전자가 포로기 이후 공동체인 여후드 공동체가 취한 방법. 그럼 후자는?

생각해 보기

1. 에스라-느헤미야는 크리스천들에게 낯선 책이다. 유대인들의 것으로 치부하기 때문. 종던 나쁘던, 이런 행위는 계속된다. 예를 들어보자.
2. 자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나/우리와 다른 이들을 대적/이단/사탄으로 만드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. 초점은 늘 밖(대적, 남, outsiders)이 아닌 안(나/우리, insiders)이다. 공동체가 도전을 받을 때, 위기 상황에서 언제나 등장하는 도식이자, '신성한 종교/정치 행위'다. 성별, 민족, 종교, 계급에 관계 없이 늘 존재한다. 예를 들면?